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서울대 사범대학 교원양성혁신센터

KYOBO 교보교육재단

교육혁신,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간다

꿈과 사랑의 길, 함께 여는 내일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교육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 기르기-

2024. 3. 27(수)

건신대학원대학교
Asia LIFE University

여태전(余泰田)

삶=교육은 만남과 기다림이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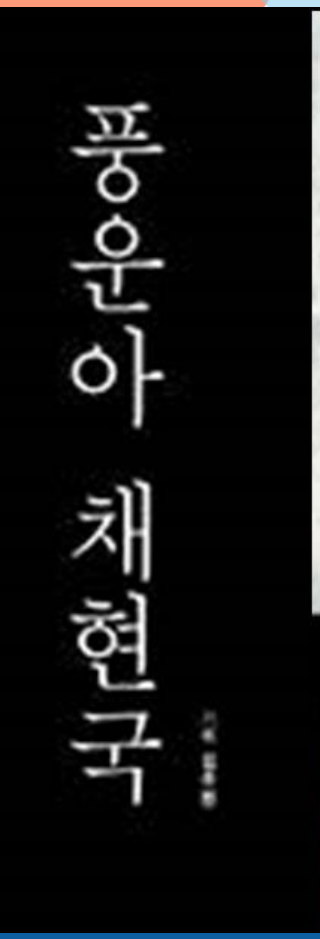
"네가 오후 4시에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벌써 기뻐지기 시작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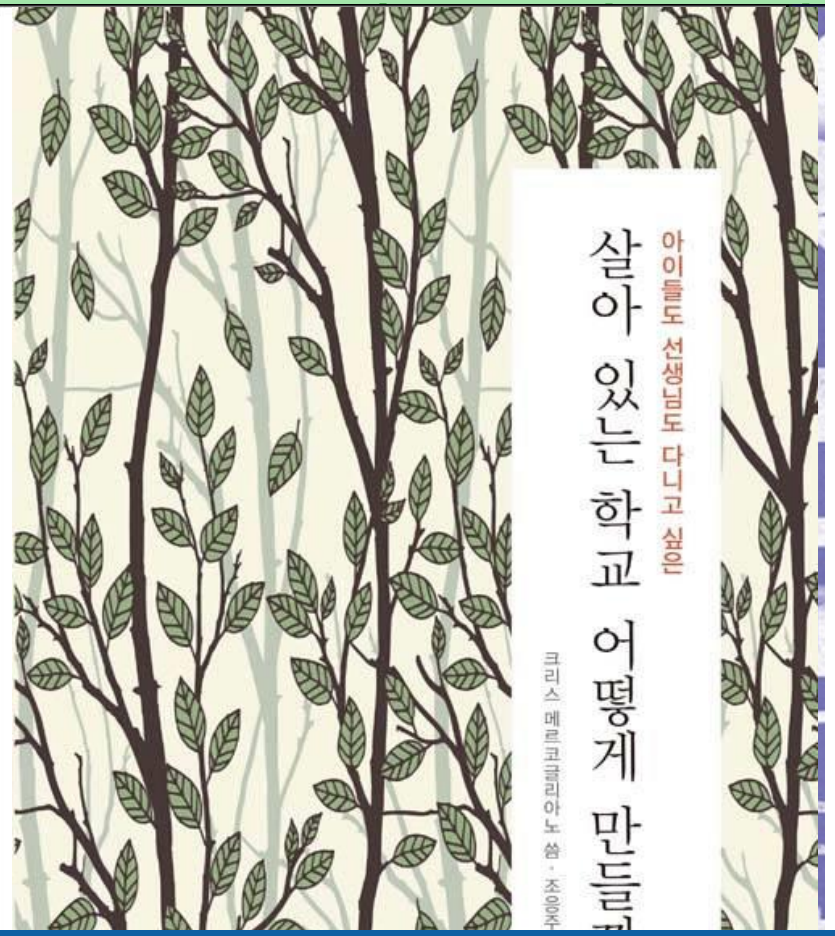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이 두 가지 선물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불인 동시에
우리를 태우는 불이기도 하다."

내가 만난 학교는 행복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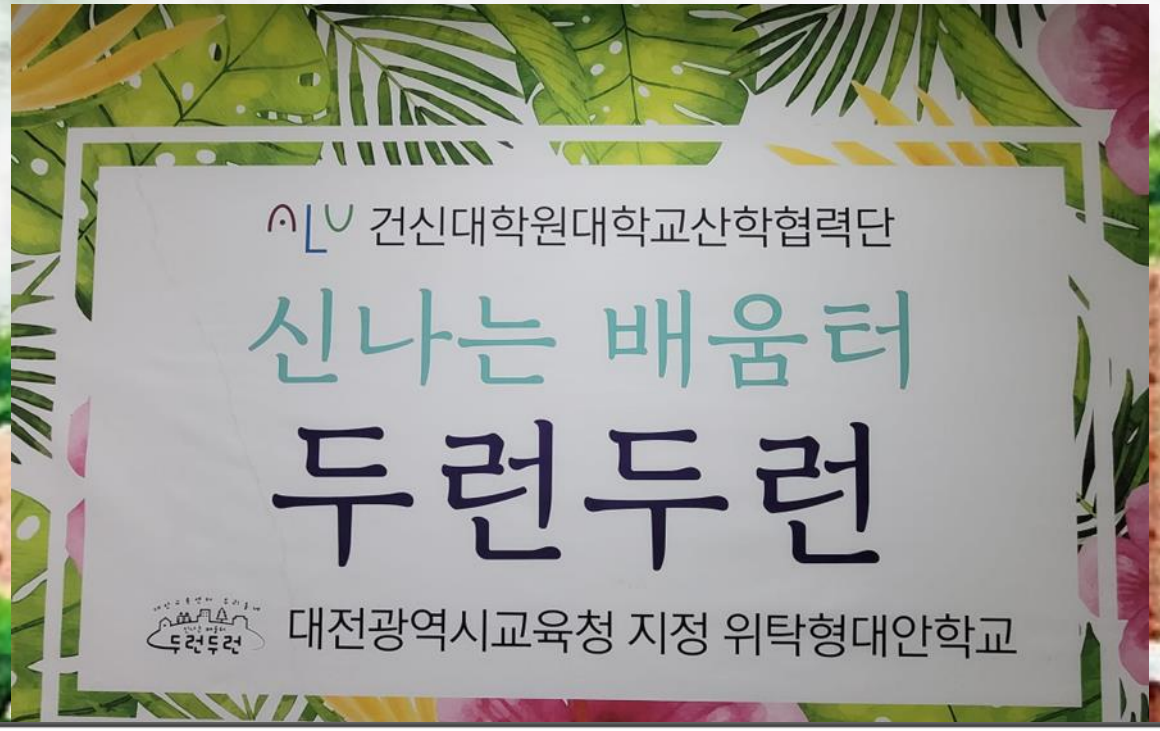




"쉽고 편안한 길은 스스로를 멸망케한다."

– 채현국

건신대학원대학교
Asia LIFE University



삶을 통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학문의 길

2023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10주년 교육한마당

1차 황선준 박사 초청특강	2차 대안교육 개설 10주년 기념포럼	3차 미래교육 국제포럼	4차 네팔 세계민주교육한마당(IDEC)참여
4. 20. (목) 18:30~21:00	5. 19. (금) 18:00~21:00	7. 4. (화) 13:00~16:00	10. 13. (금) ~ 23. (화)

- 당신의 꿈은 교사인가요?
- 당신은 왜 교사가 되고 싶지요?
-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요?

- 대한민국 교사들은 행복할까요?
- 좋은 교사, 행복한 교사는 누구일까요?

- 대한민국에서
  교육혁명을 꿈꾸는 교사는 없을까요?

교사수첩 16

-김 선생의 길

여태전

지리산 꽃사슴 같은 청순한 눈동자로
교직에 들어선 내 후배 김 선생은
가끔씩 술자리에서 푸념 늘어놓는데

길에 들어서기 전에는 길이 보이더니
길에 들어서니 길이 안 보이더라 한다
그 먼 길 먼저 들어선
나는 술잔만 권할 뿐

왜 길을 못 찾느냐고 나무랄 수도 없고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부끄럼 애써 감추며
맥 없이 술잔만 받는데

아- 아 김 선생의 길은 정녕 없는가
어깨 걸고 당당히 걸을 수 있는 훤한 길
우리들 한결같이 꿈꾸는
그런 길은 없는가

비(悲), 함께 아픔을
-2024년을 위한 서시(序詩)

이병철

꽃이 아름다운 것은
피면서 지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

삶의 매 순간이 절실하고 아릿한 것은
살아가는 것과
죽어가는 것이 함께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모든 목숨붙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자,
살아남고자 하느니

불타고 무너지는 세상
죽임당하는 뭇 생명의 애절한 눈빛 앞에서
지금은 우리 저마다의 아픔으로 서로를 품어 안아야 할 때

우리 모두 한목숨으로 이어져 있으니
그렇게 함께 죽어가고 있으니

사랑이란 죽어가는 내가
죽어가는 너를 혼신으로 품어 안는 것

지금은 아픔을 함께할 때
지극한 아픔 너머에서
새 생명 환하게 태어나는 것이니

배움의 도 -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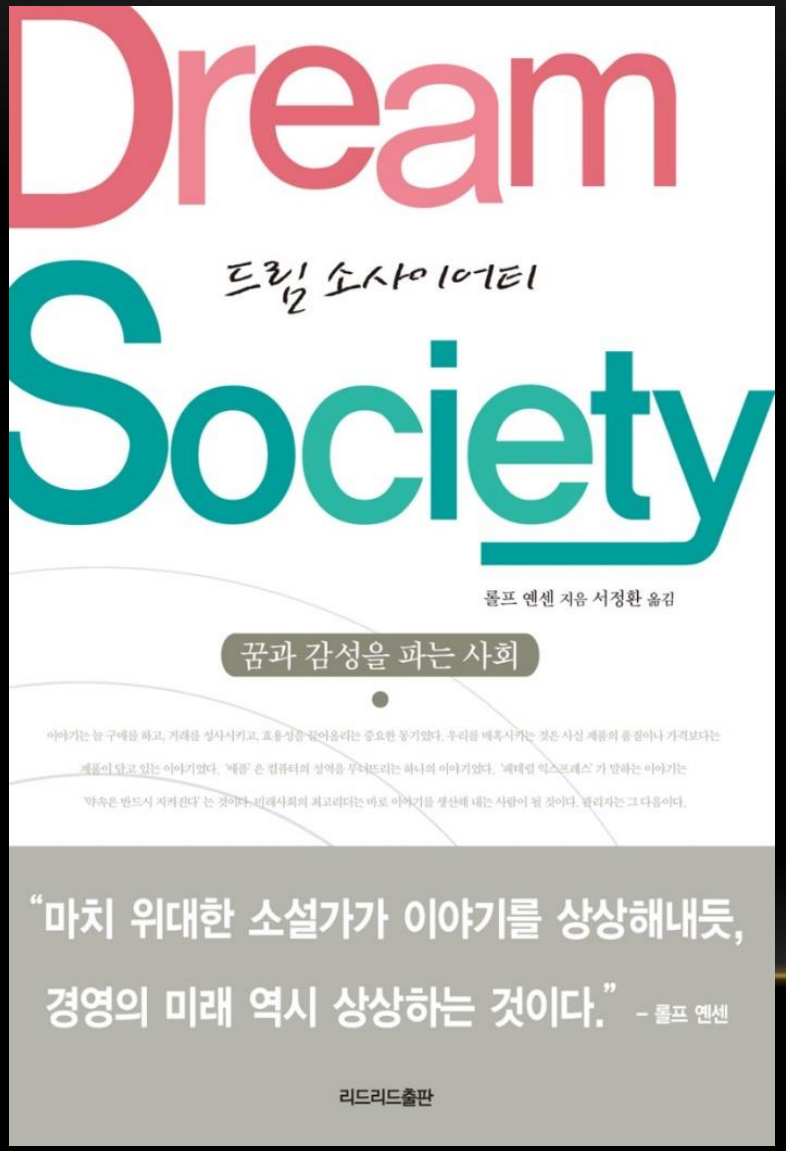
뛰어난 교사는 자기 뜻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학생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품고서 일한다.

선한 학생을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학생도 선하게 대한다.
이것이 진짜 선이다.

믿음직한 학생을 믿고
믿음직하지 못한 학생도 믿는다.
이것이 진짜 신뢰다.

뛰어난 교사는 마치 열려 있는 하늘과 같다.
학생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만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자신을 열어 놓는다.
교사는 그들을 자기 몸의 일부인 듯이 신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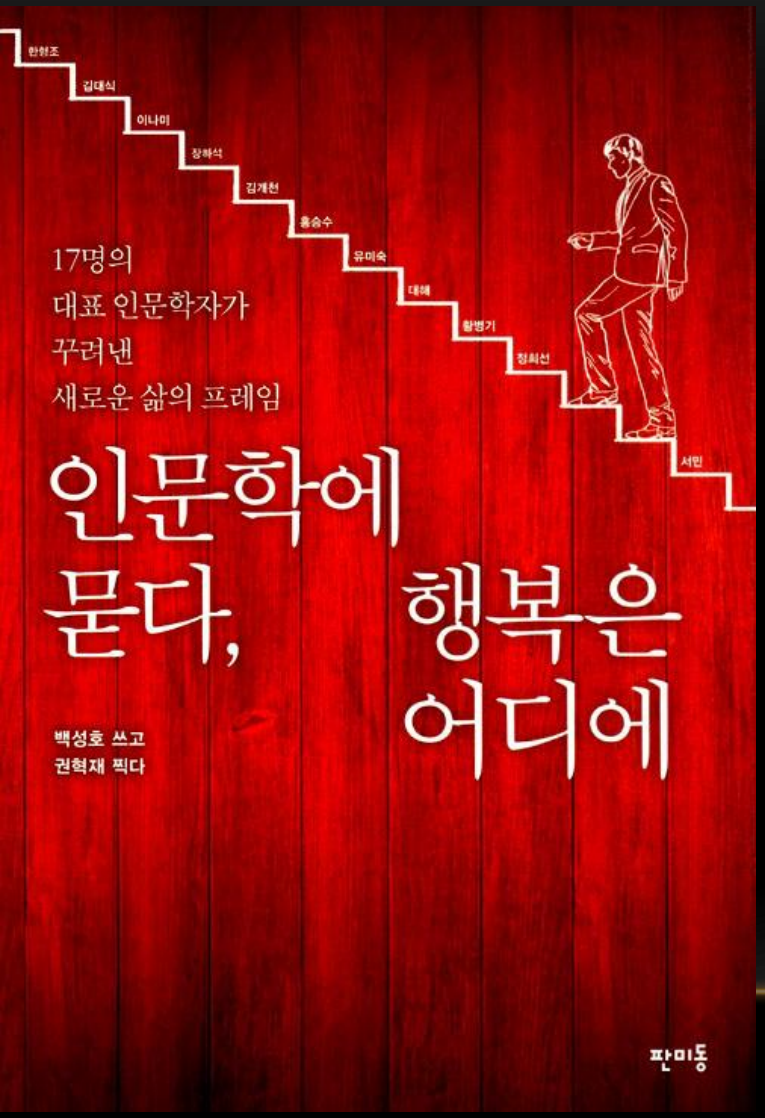
왜 꿈과 감성인가?



꿈과
감성이 담긴 멋진
이야기를 파는 사회

롤프 옌센(Rolf Jen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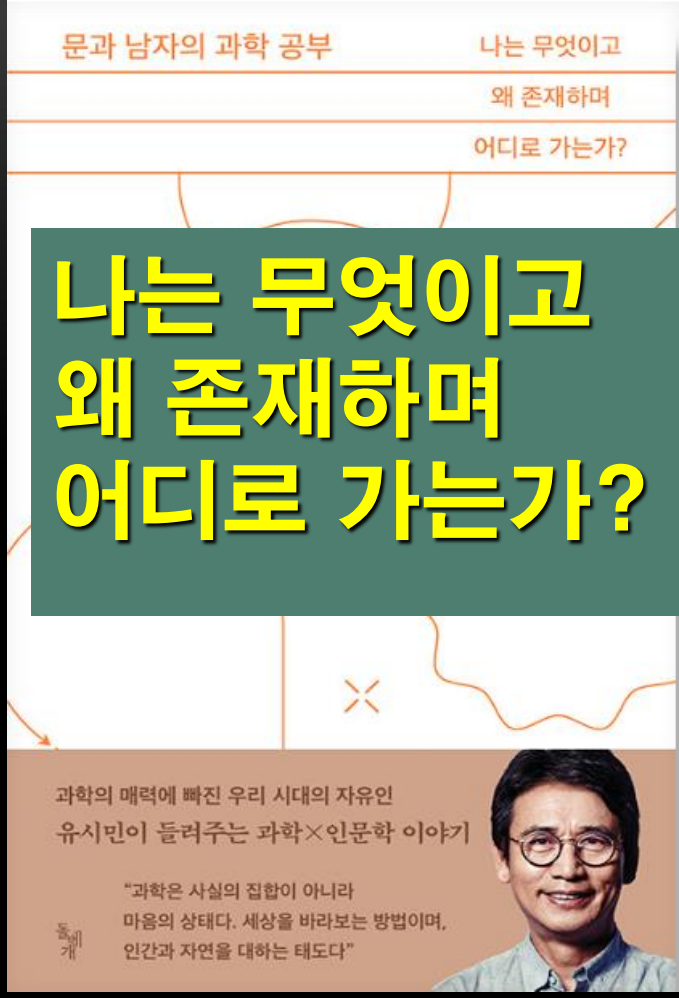
왜 인문학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서울대 사범대 예비교사들은 행복한가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난 1등 같은 것은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 1986년 어느 여중생의 유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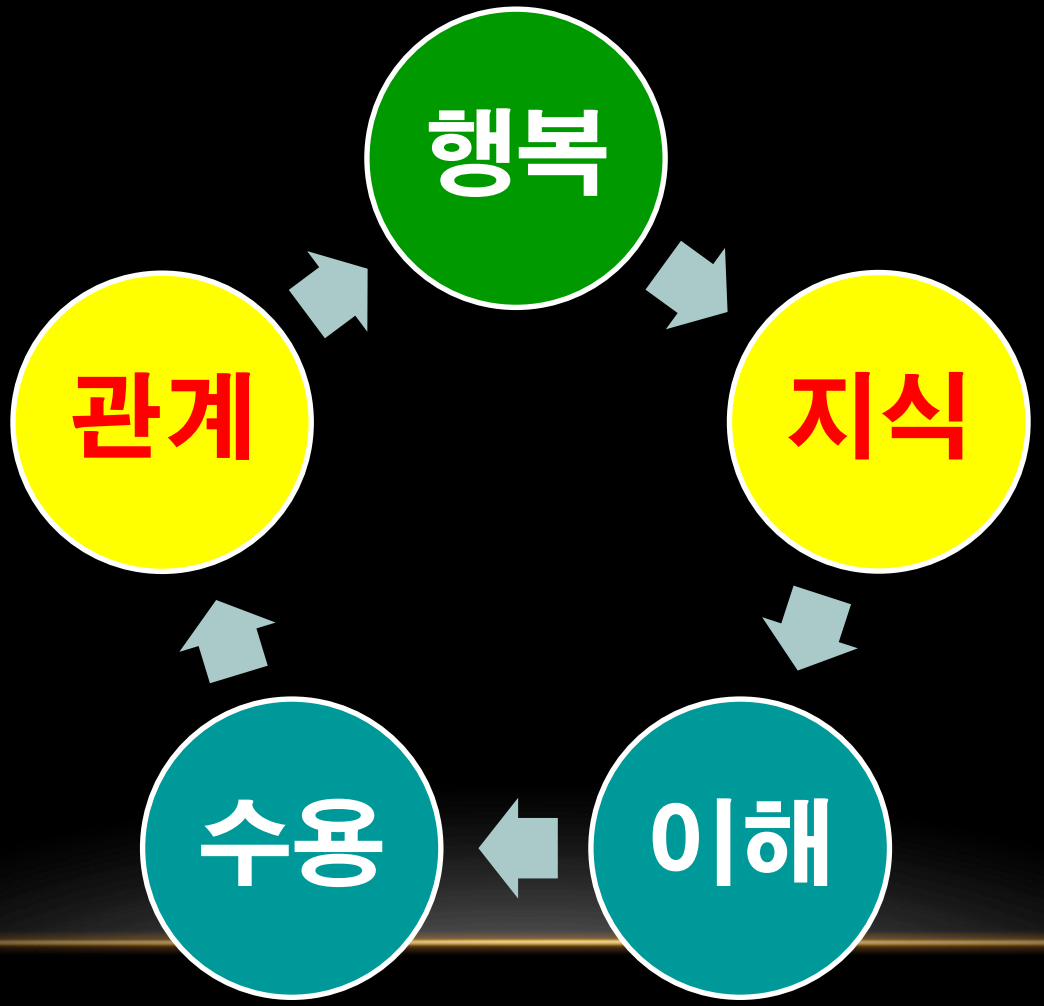
- 1997년 한해 15세-24세 청소년 자살자수 986명\
- 한해 200명 이상 청소년 자살

대한민국 교사들은 행복한가요?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꿈과 사랑의 깃발 흔들며
낙타처럼 뚜벅뚜벅 걸어온 교사의 길,
나는 그 길에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았던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고정관념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다만 모른다는 것을 알뿐이다."

行 易 知 難

"행하는 것은 쉽지만 안다는 게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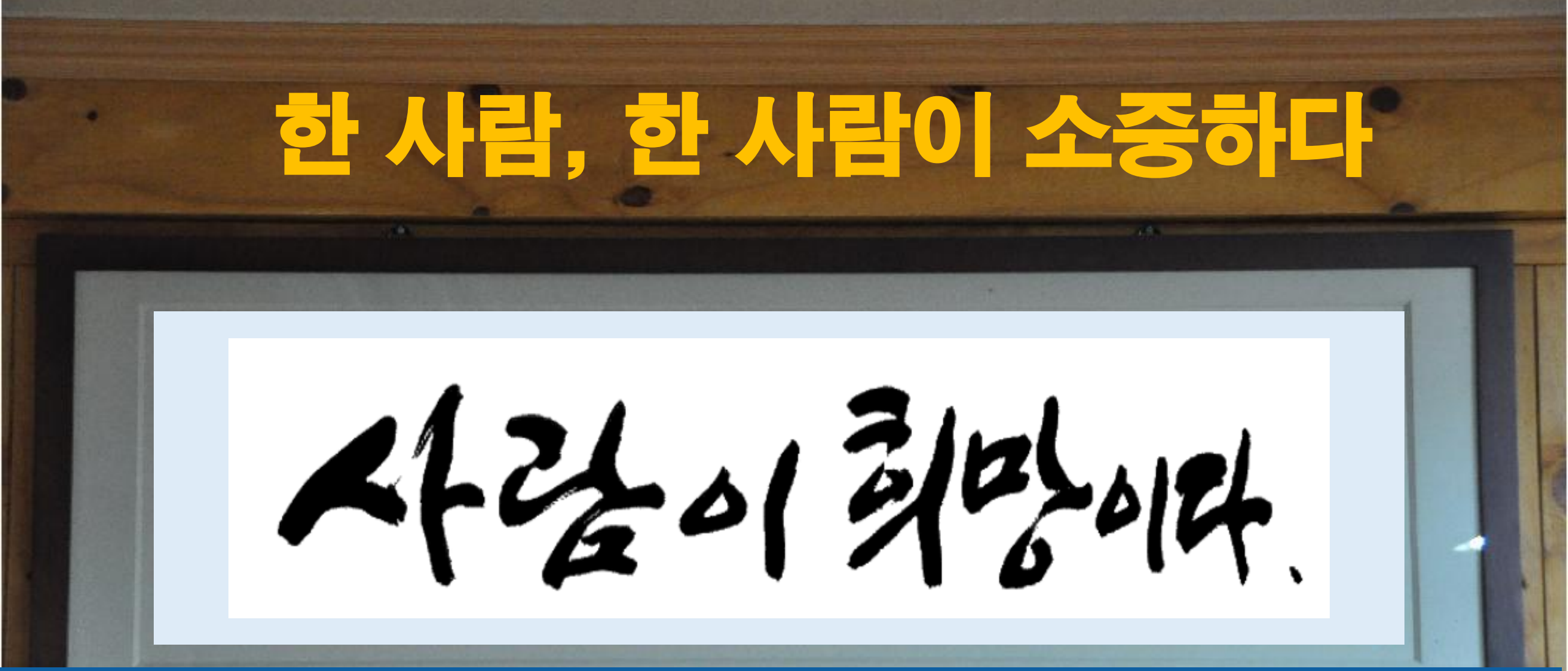
VS

배움과 성찰(성장)이
멈춘 사람

죽을 때까지
배우며 성찰하는 사람

참사람은 꿈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배움과 성찰에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온 세계가 성장한다. -간디

Difference is beautiful

우리는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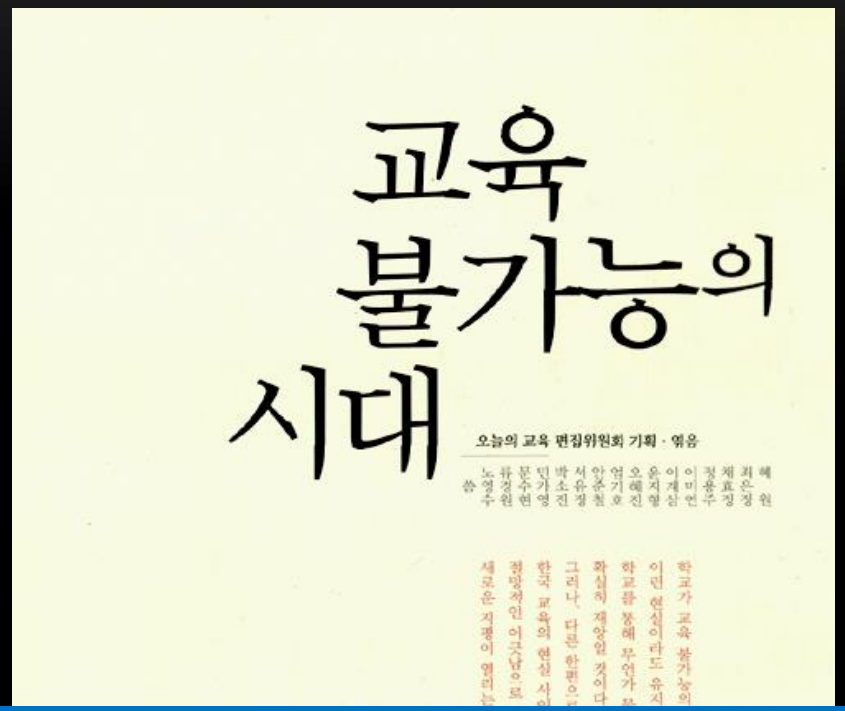
다

다르다.

다른 것이 아름답다.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지 않는다

성찰과 진단 : 승자독식사회의 과잉경쟁교육



"이 땅의 자기 파괴적인 과잉경쟁교육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 교육은 엘리트라는 괴물을 양산해왔고, 우리의 구조와 시스템은 괴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왔다." -최동석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는?

- 아이들은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나의 도반(道伴)이요 친구다.
- 아이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자.
- 가르치는 전문가보다 배우는 전문가가 되자.
- 아이는 인류학적 나이로 볼 때 나의 선배다!
- 최악의 경우라도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
-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한 번 더 절망하더라도 사랑하기!

서머힐 100년 자유와 사랑의 길

"자유를 주는 사람은 사랑도 준다.
사랑만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FESTIVAL of CHILDHOOD

Summerhill School

founded by A.S.Neill in 1921 and still ahead of its time

문제아는 없다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다만 존재하는 것은 문제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사회가 있을 뿐이다."

-A.S. Neill(1883-1973)-

더 이상 아이들을 탓하지 말자.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다!

서머힐, 자유와 존엄의 깃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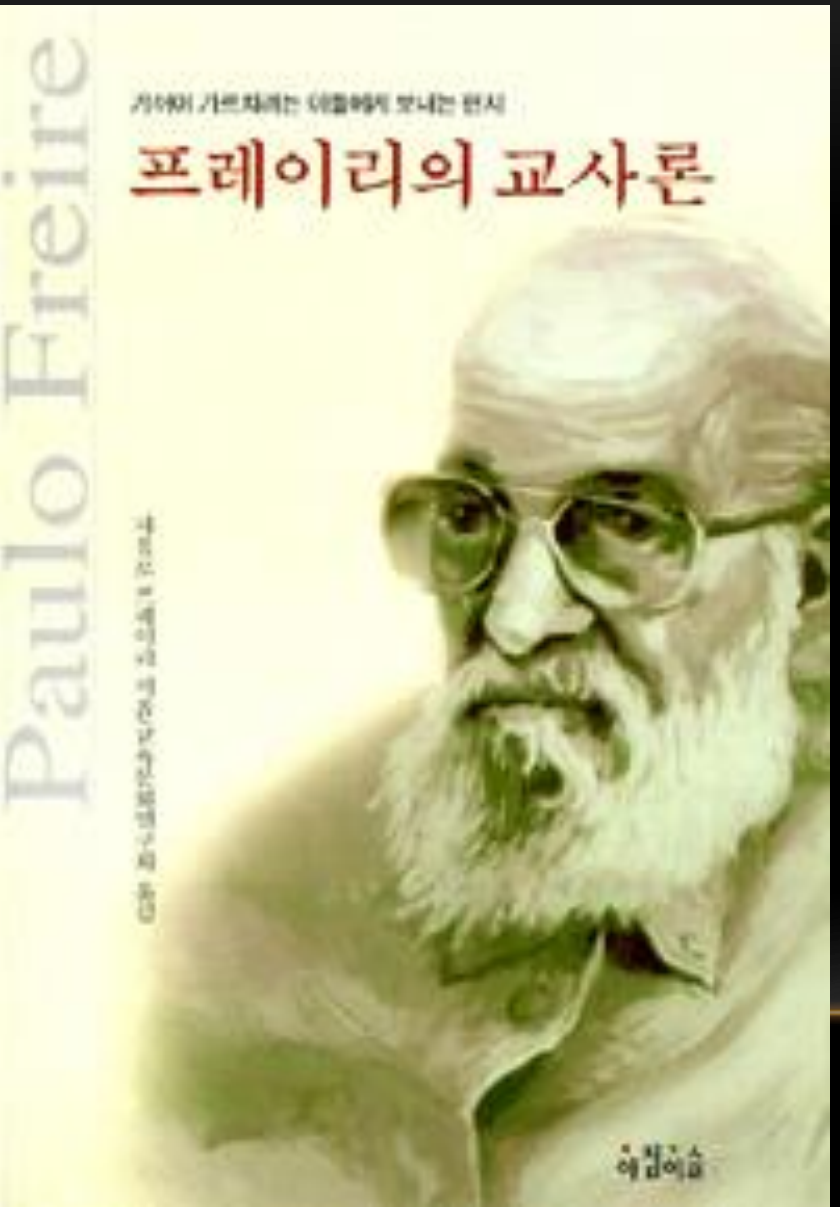
"어린이를 학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맞춰야 한다."

"신경증에 걸린 학자 한 사람을 배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복한 청소부 한 사람을 배출하는 편이 낫다."

"가장 좋은 교사란 학생들과 함께 웃는 교사이다. 가장 좋지 않은 교사란 아이들을 우습게 보는 교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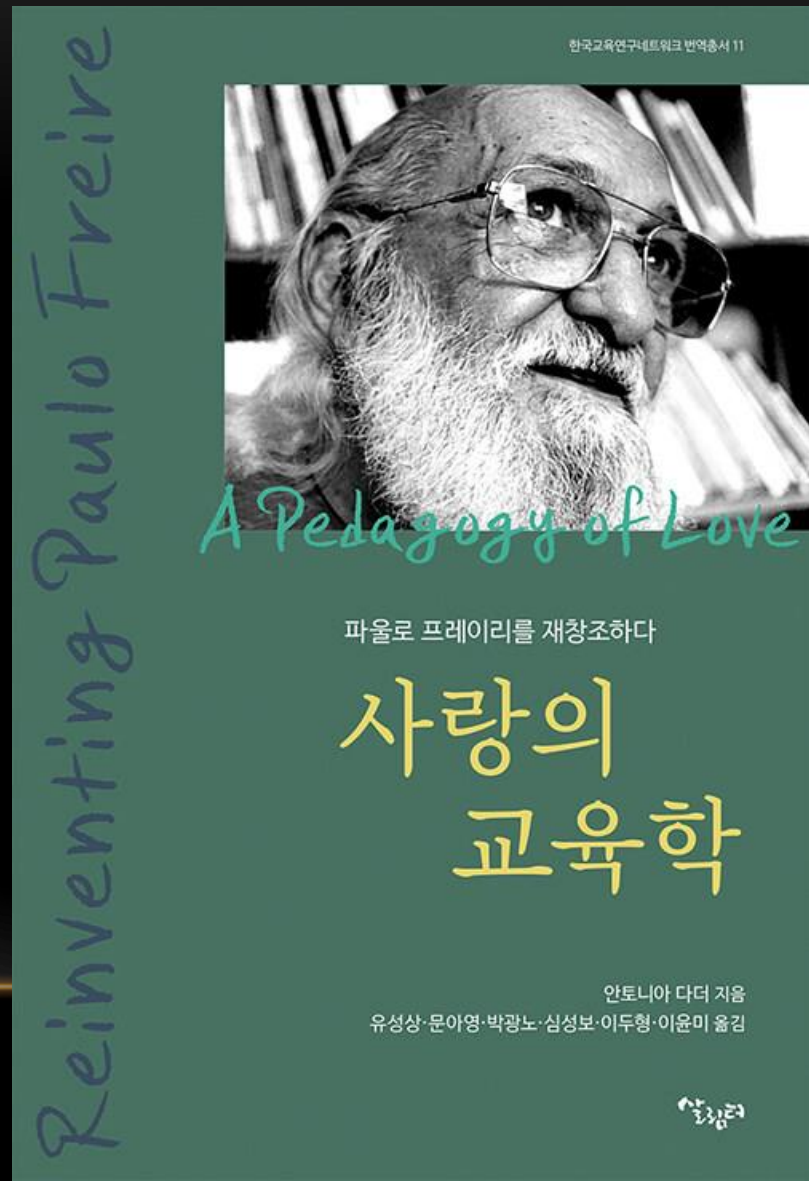
-A.S. Neill(1883-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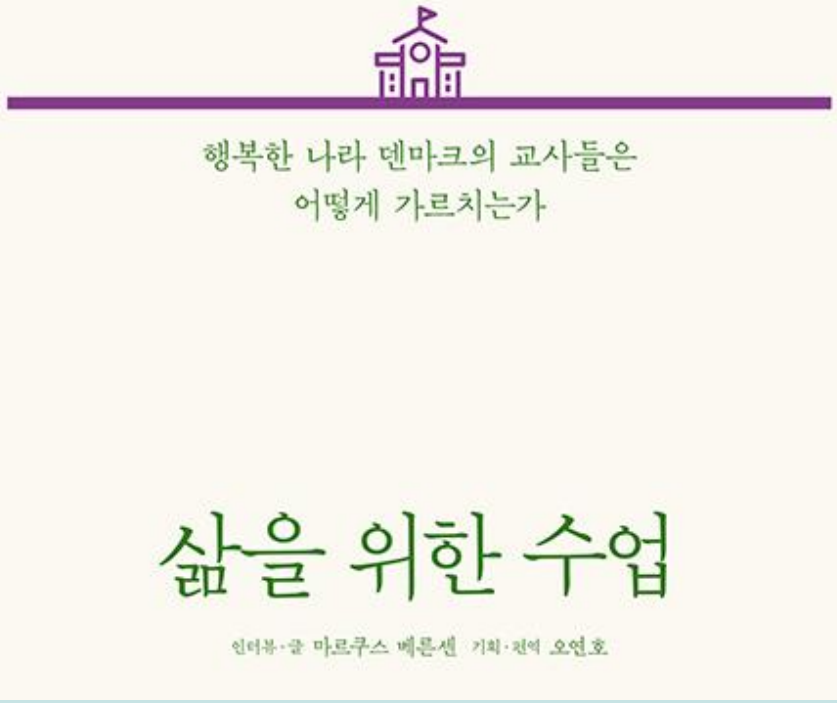
사랑할 용기, 수천 번 시도할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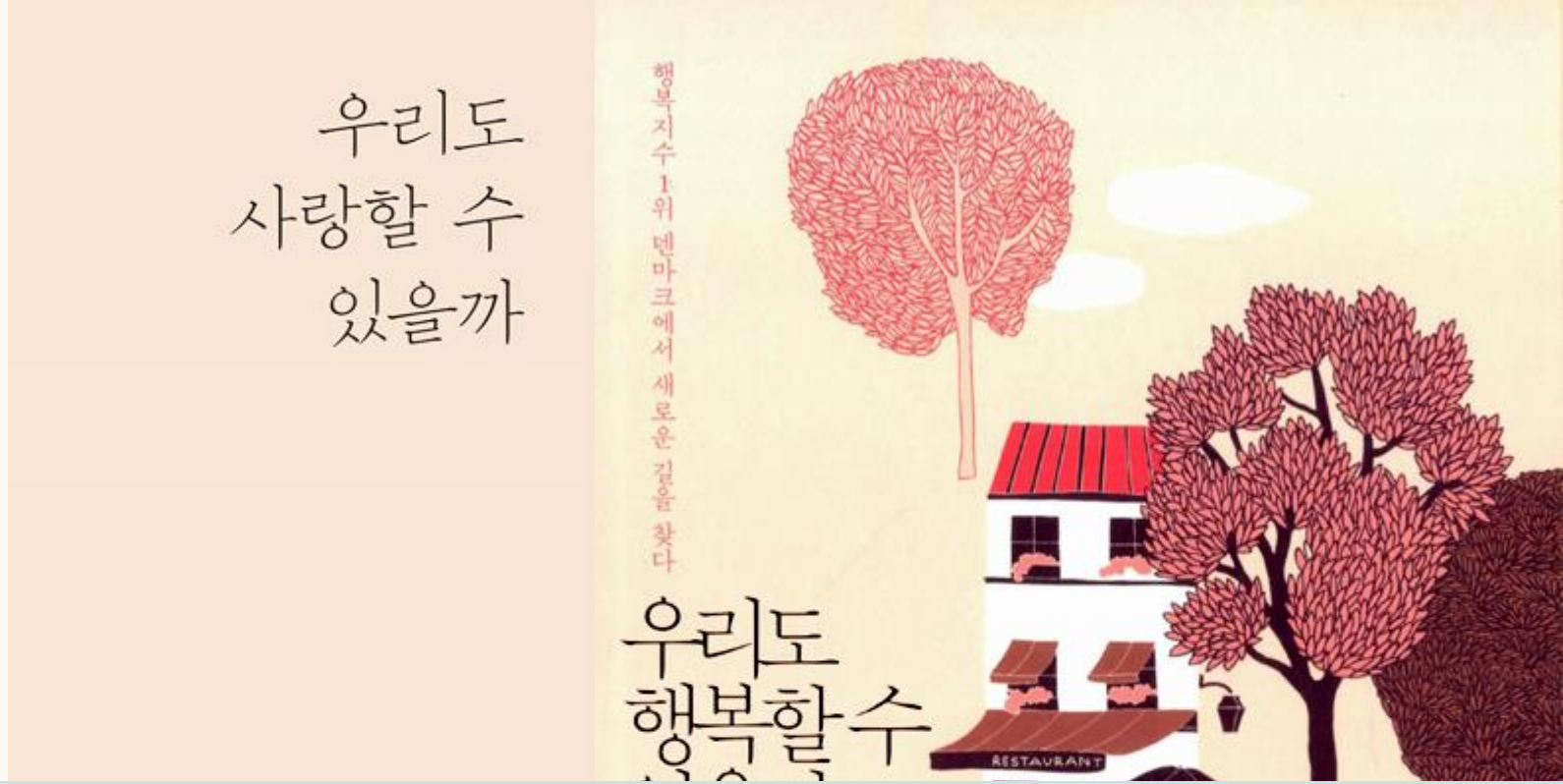


"사랑할 용기가 없다면, 포기하지 않고 수천 번 시도할 용기가 없다면, 가르치는 일은 불가능하다."

-파울로 프레이리-







“행복하려거든 사랑하라!
부족한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그 힘으로 옆 사람을 사랑할 때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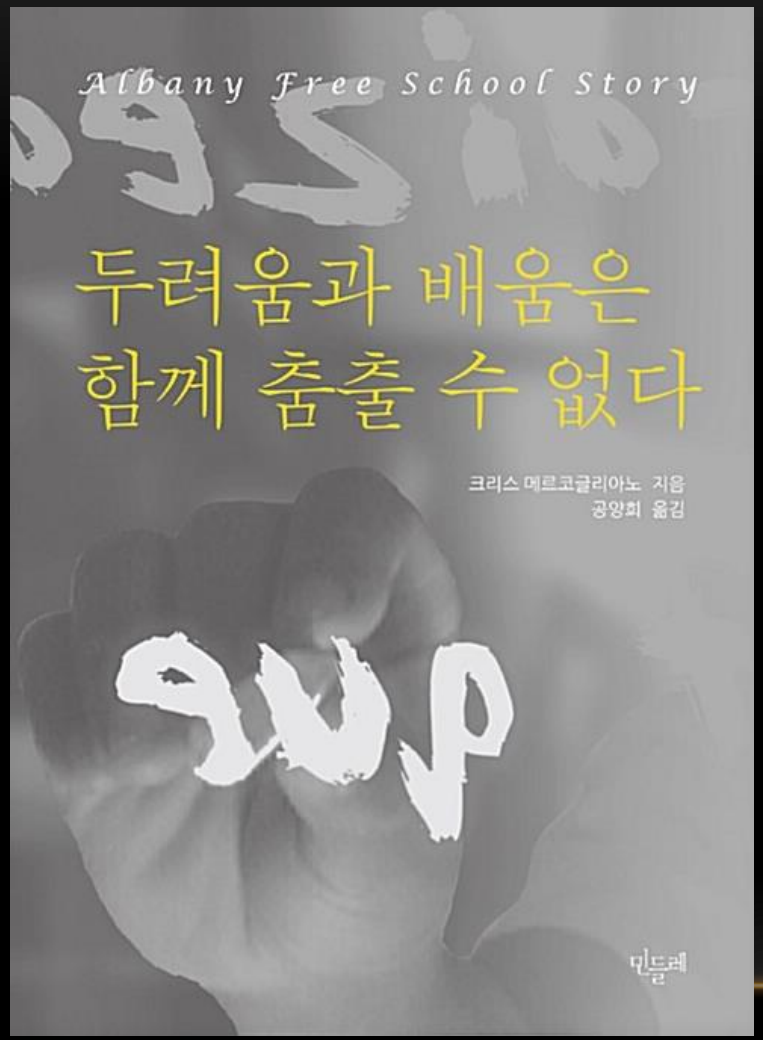
사랑의 길이냐,
두려움의 길이냐?

순간순간 우리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열린다
사랑과 두려움의 갈림길이

두려움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랑은 그저 기다릴 뿐이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교육으로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우리의 전체 교육체제와 방법론이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도대체 왜 ‘학습과업’을 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쉴새없이 조각내고 있는가? **왜 그토록 미친 듯이 적성과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일까?** 대다수의 아이들과 부모들의 요구를 절대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사실상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왜 해마다 그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것일까?”

2살이면 이제 걸을 때네요~

평균의 종말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

THE END OF AVERAGE

토드 로즈 지음
정미나 옮김
이우일 감수

교사 학부모 필독서

**ADHD 장애 자퇴생에서 하버드대 교수로,
토드 로즈가 발견한 '개개인성'의 힘**

평균적인 인간이란 잘못된 과학적 상상이 빚어낸 허상이다!

21세기북스

한국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기업에서 학벌위주로 뽑는데다, 패자부활전이 없다. 대학 졸업 때 좋은 직장 못 가면 평생 못 간다. 그게 학교의 입시 위주 공부 환경을 만들고, 근시안적인 인간을 만든다. 일류 대학의 이기주의도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고 있다. 그들은 한국의 교육문제나 학생들의 건강과 장래에 대해 관심이 없다. 똑똑하고 돈 많은 집 학생들을 뽑겠다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방조하고 조장한다. **대학, 기업, 정부 3자의 공동작품이 한국의 입시지옥**이다."

-2010.11.15(월) <한겨레> 6면. 이정우 인터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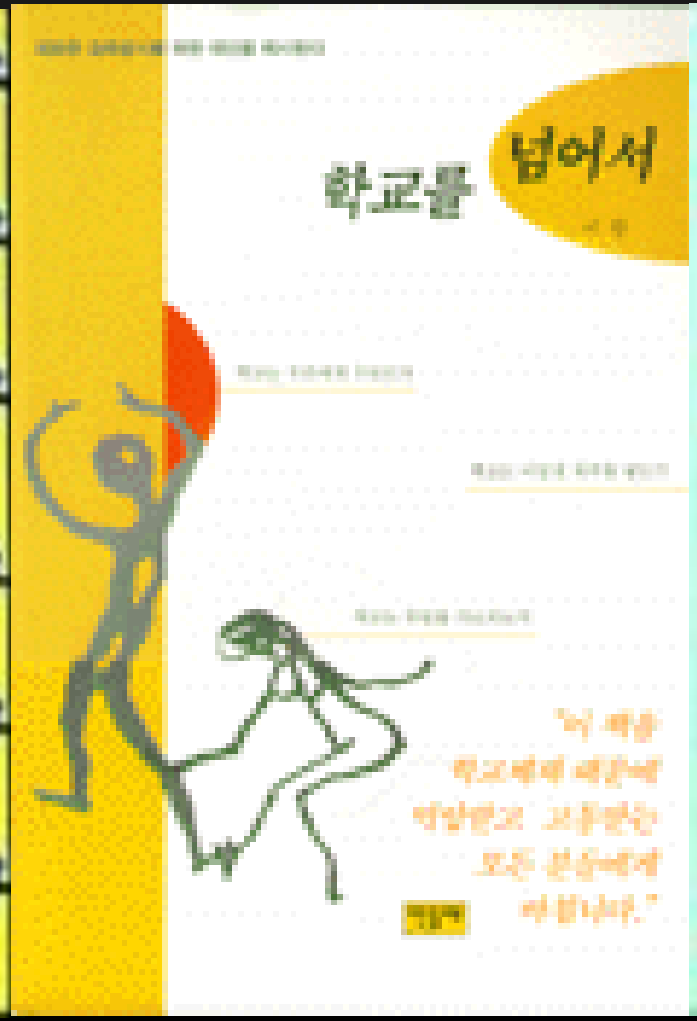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데아>

1994. 8. 10. 발매

"됐어 됐어 이젠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족해 족해 족해 족해 내가 그런 계산으로 뭘 해 / 매일 아침 일곱 시 삼십 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구백만의 아이들의 머리 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 집어넣고 있어 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막힌 꽉 막힌 사방이 막힌 널 그리곤 덥썩 모두 들어 먹어 삼킨/ 이 시커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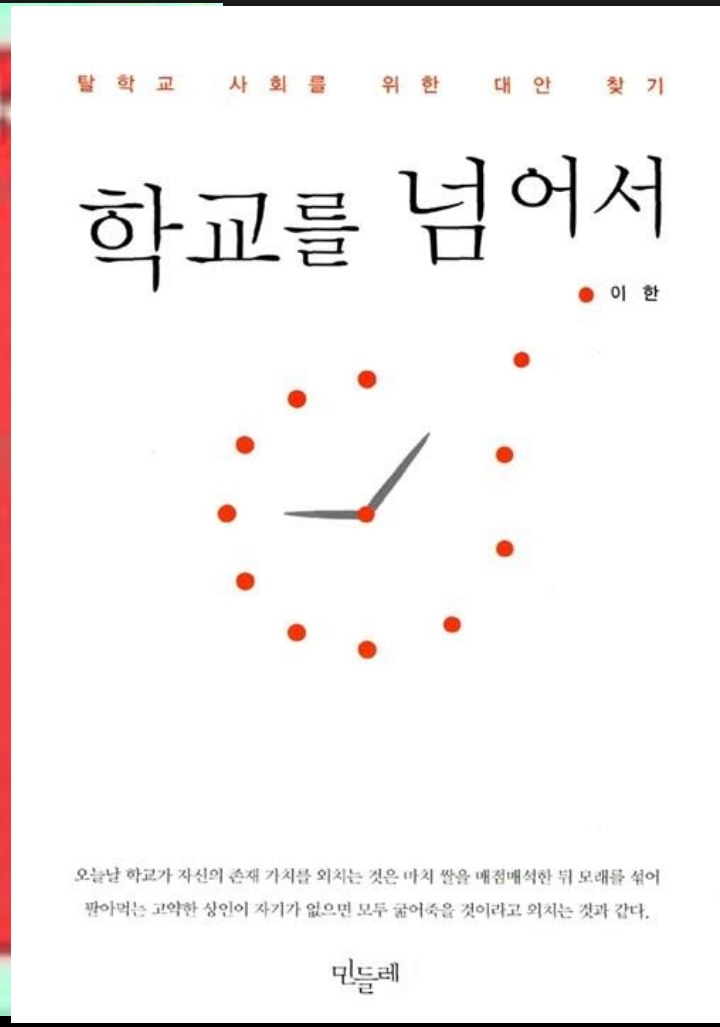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조한혜정(1996)



이한(1998)

이한(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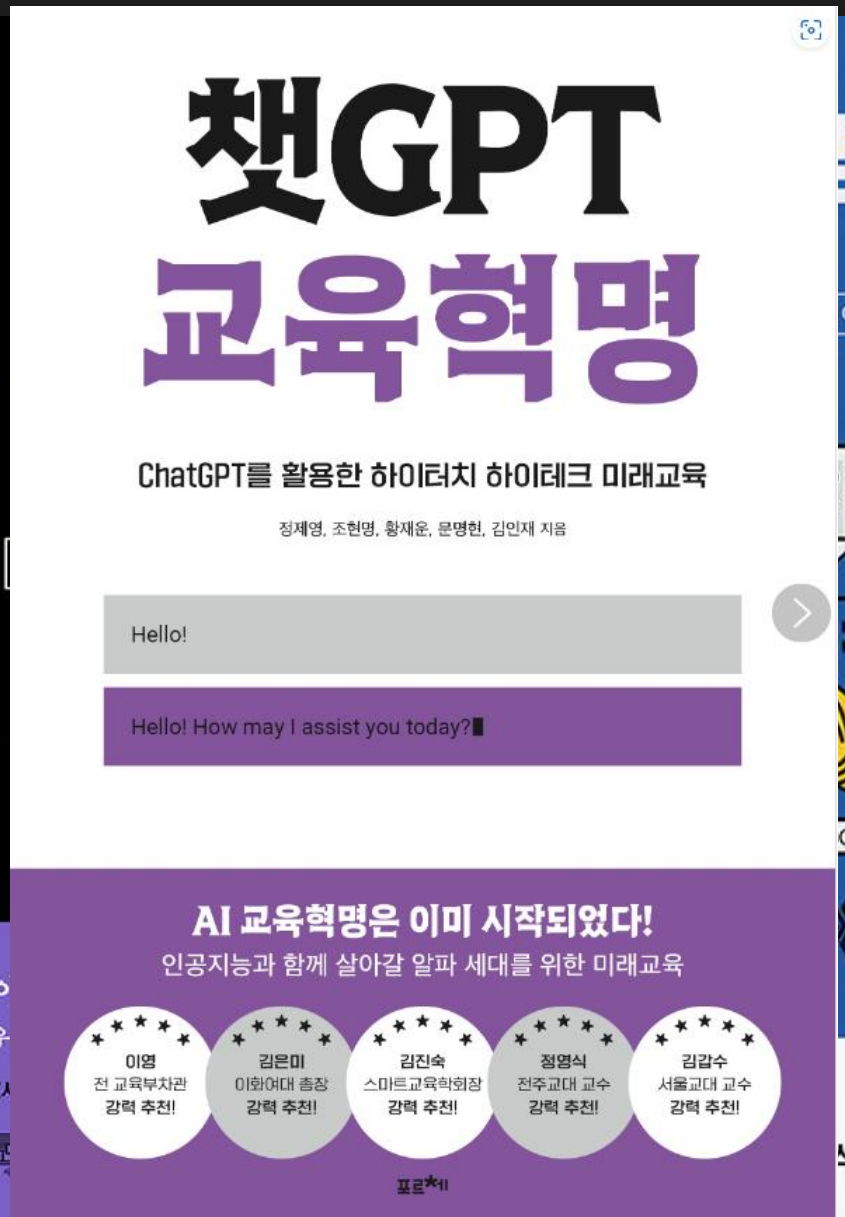
이한(2010)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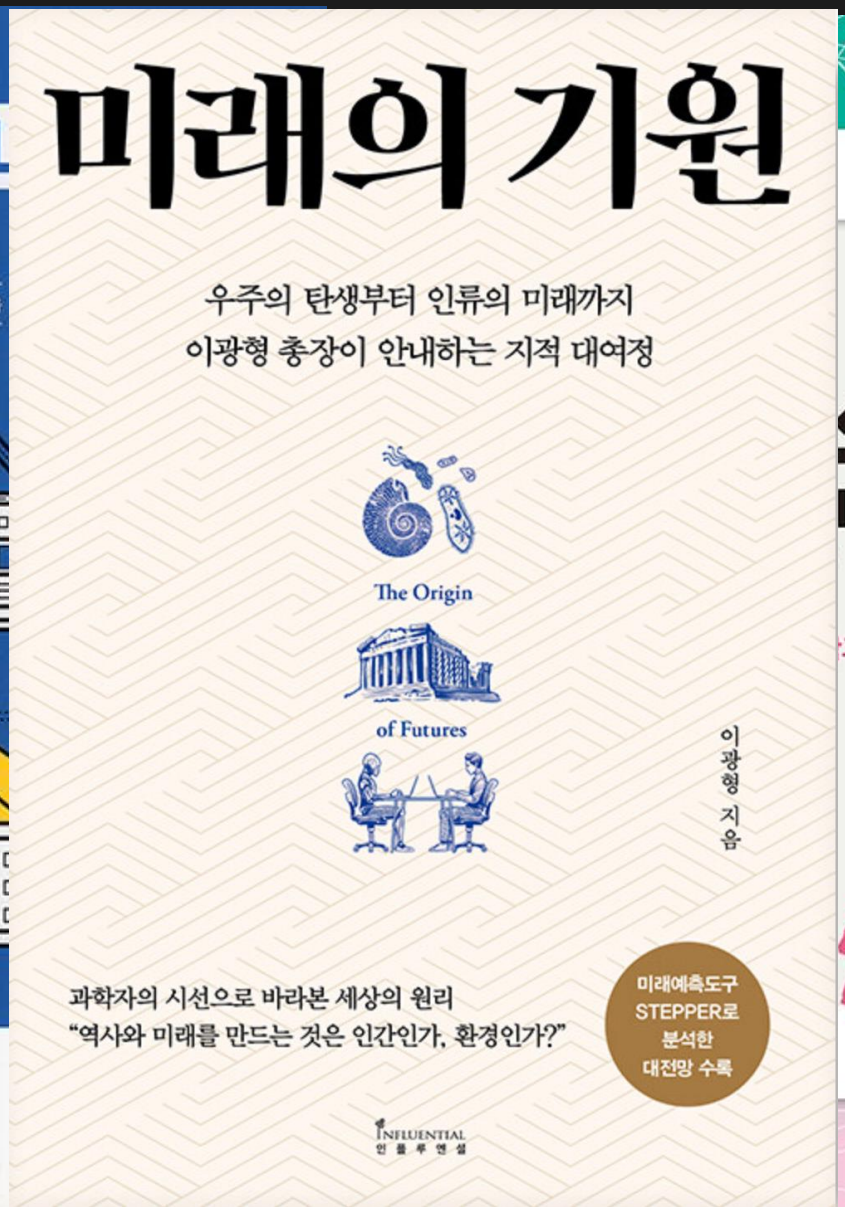
“인간 존엄을 지키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교육으로 행복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기!”

무성한 미래교육 담론

일본 아마존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제4차 산
교육의
포스트 코로나 시
아이 한 명당 1단말
코로나19와 AI로 인해 시
미래를 개척하는 배움을 실현


챗GPT
교육혁명
ChatGPT를 활용한 하이터치 하이테크 미래교육
정제영, 조현명, 황재운, 문명헌, 김인재 지음
Hello!
Hello! How may I assist you today?
AI 교육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알파 세대를 위한 미래교육
이영
전 교육부차관
강력 추천!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강력 추천!
김진숙
스마트교육학회장
강력 추천!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
강력 추천!
김갑수
서울교대 교수
강력 추천!

이태욱 지음


미래의 기원
우주의 탄생부터 인류의 미래까지
이광형 총장이 안내하는 지적 대여정
The Origin
of Futures
이광형 지음
과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원리
"역사와 미래를 만드는 것은 인간인가, 환경인가?"
미래예측도구
STEPPER로
분석한
대전망 수록
INFLUENTIAL

최승복 지음
교가 온다

한국교육은 미래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것 조차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앨빈토플러 2008. 11.

미래사회 삶을 위한 교육운동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탐욕' 이라는 바이러스다." – 김종철(전 녹색평론 발행인)

대안교육(미래교육, 전환교육)은
경쟁교육에서 연대와 협력의 교육으로!
탐욕 바이러스 퇴치 운동으로!!
더 질 높은 민주시민 교육으로!!!
더 조화로운 생태환경교육으로!!!!
더 즐겁고 행복한 생명평화교육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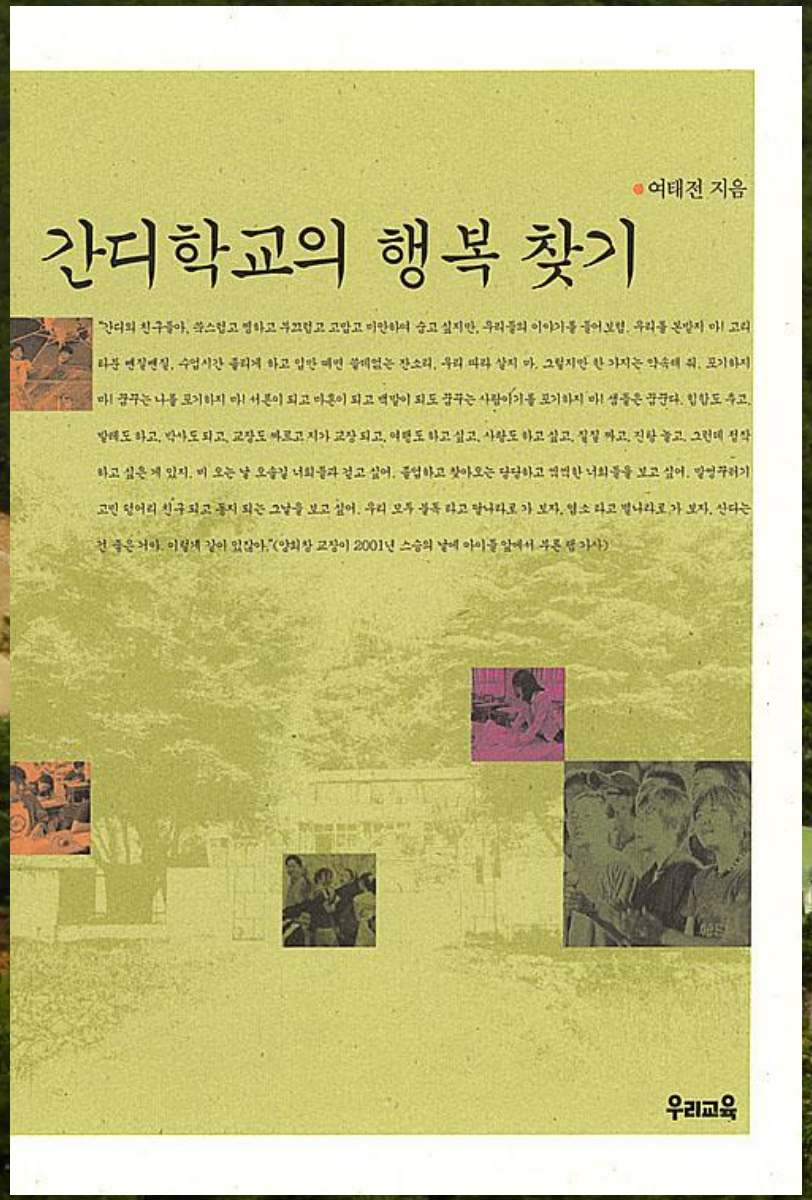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는가?

양희규

"이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들에게
인생이 너무나 짧고 소중하다.
진정 길은 없는가?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는가?
아니다.
길은 만들면 되는 것이다.
어둠을 한탄하기만 할 것인가?
결코 아니다.
어둠은 밝히면 되는 것이다.
낫 한 자루로도 숲 속에 길을 만들 수 있고
작은 촛불 하나로도 큰 방을 밝힐 수 있다."

- 양희규,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1997)에서-

1997년 산청 간디학교(간디고) 탄생



왜 간디인가?

단순한 삶
노동하는 삶
공동체적인 삶

제천 간디학교(1997-2002)
금산 간디학교(2002)
산청 간디중학교(2005)
산청 간디어린이학교(2009)
필리핀 간디국제학교(2010년)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왜 대안학교(미래학교)인가?

배움과 성찰에 목 마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 학교’
‘꿈의 학교’
‘삶의 학교’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도 대체재도 아니다."

"대안교육은 공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선도재다."

"대안교육은 미래교육을 선도한다."

모든 학교는 대안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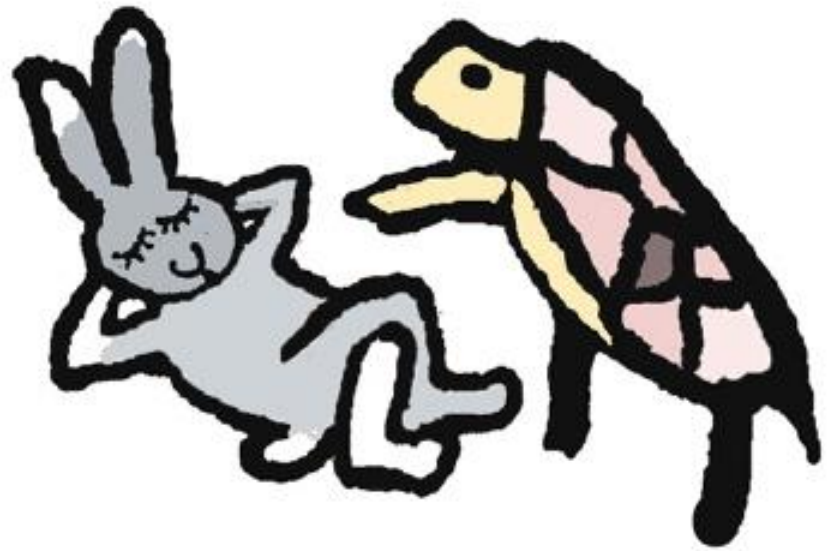
대안학교(미래학교)는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다!!

스펙트럼을 통과하는 빛의 파장만큼이나
삶은 다양하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교육에도 정답이 없다.
다만 함께 손잡고 삶을 배워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만인에게 만인의 삶이 있듯이,
대안교육은 만인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삶이 곧 교육이고, 생활이 곧 교육이다

공교육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조용한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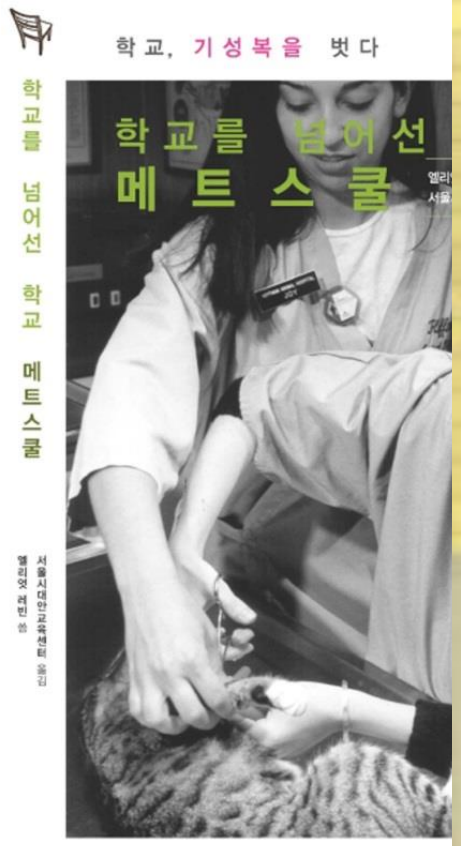
함께가자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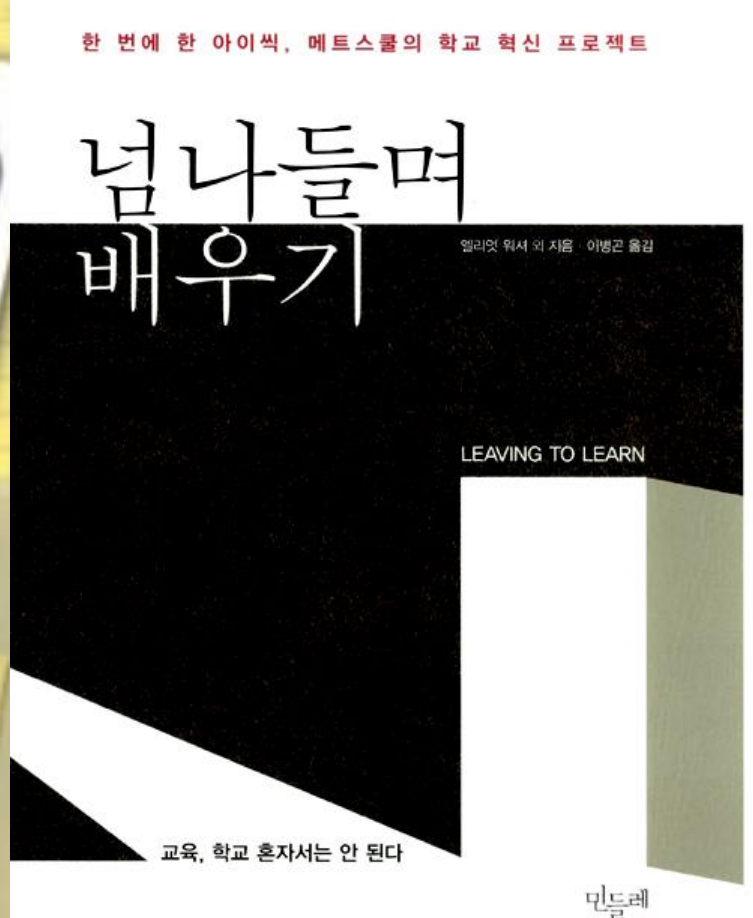
토끼를 깨워서 함께가는 거북이가 되어야합니다.

서 정

태봉고등학교
TAEBONG HIGH SCHOOL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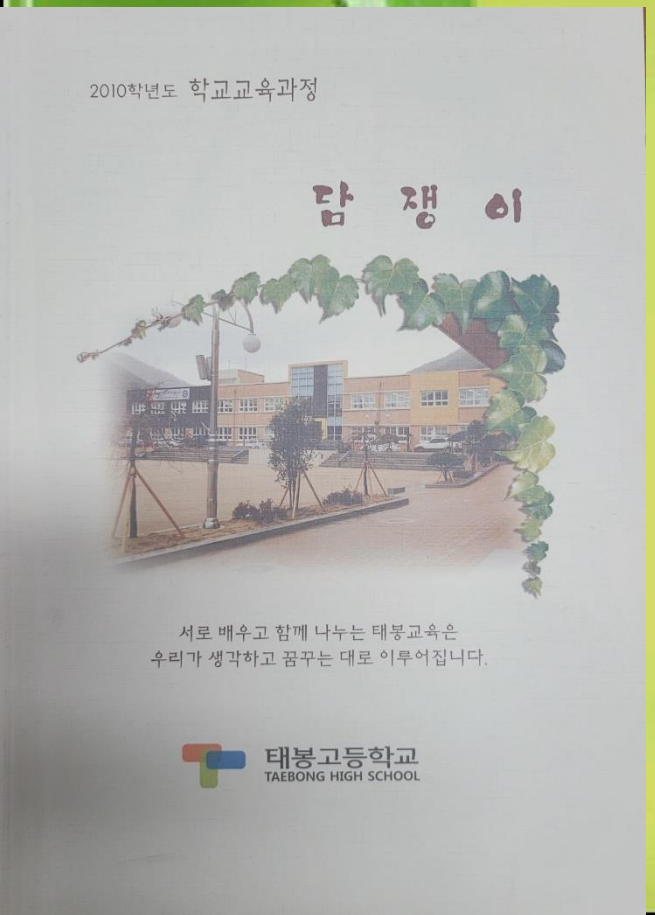


태봉고등학교
TAEBONG HIGH SCHOOL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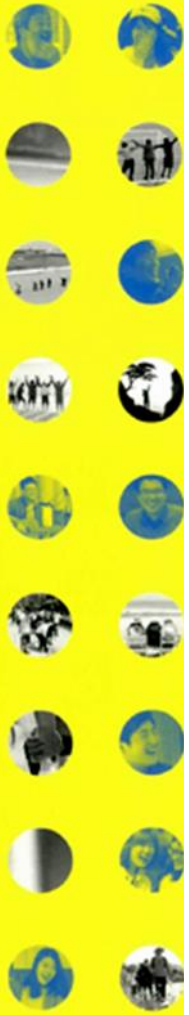
담 쟁 이

도 종 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길은 감동과 행복으로 통한다!



공교육을 살리는 희망 징검돌

공립 대안 태봉고 이야기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행복한 교육아틀을 꿈꾸다 · 공약하지 말고 낙후시켜라 · 아이들에게 감을 터주고 르치는 전문가가 아닌 배우는 전문가 · 지리산만큼 배포가 큰 아이들 · 날라리들과 범생이들의 한판전쟁 · 이제는 교육아틀이다 · 아이들은 어른들의 인류학적 선배요 스승이다 · 뭔이 뭔이, 그런 가르침은 뭔이

여름언덕

공립 대안 태봉고 이야기 2

배움과 성찰에 목마른 교사들의 10년 실천교육학

선생님들의 수다

수다쟁이들 — 류주옥, 백명기, 손옥금, 오도화, 이인진, 하태중

여름언덕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3퍼센트의 소금 같은 학교를 꿈꾸다!

행복한 학교 하나 반듯하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만남의 기쁨으로 설렘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즐거운 배움터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담쟁이처럼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절망의 벽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태봉고등학교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들어낸 '희망의 합창곡'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함께 부른 노래 제목은 '감동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감동교육'과 '행복교육'의 쌍두마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침내 행복한 학교, 태봉고등학교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존재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슴이 벅차도록 기쁘고 행복합니다.

00원
03370
100172
9-11-5510-017-2

담쟁이대훈장

여 태 전 쌤

쌤은 공교육의 벽에 절망하기 보다는
그 벽을 넘어서는 담쟁이가 되기를
원했고, 잠자는 토끼를 깨워 함께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모두를 받아주는 바다의
마음으로 3%의 소금이 되고자
염원하였지요. 아울러 어둠을
탓하기 보다는 하나의 촛불이
되고자 하였으며, 교장이기
보다는 기꺼이 상머슴이 되고자
애썼기에 태봉고 학부모를 대표하여
이 훈장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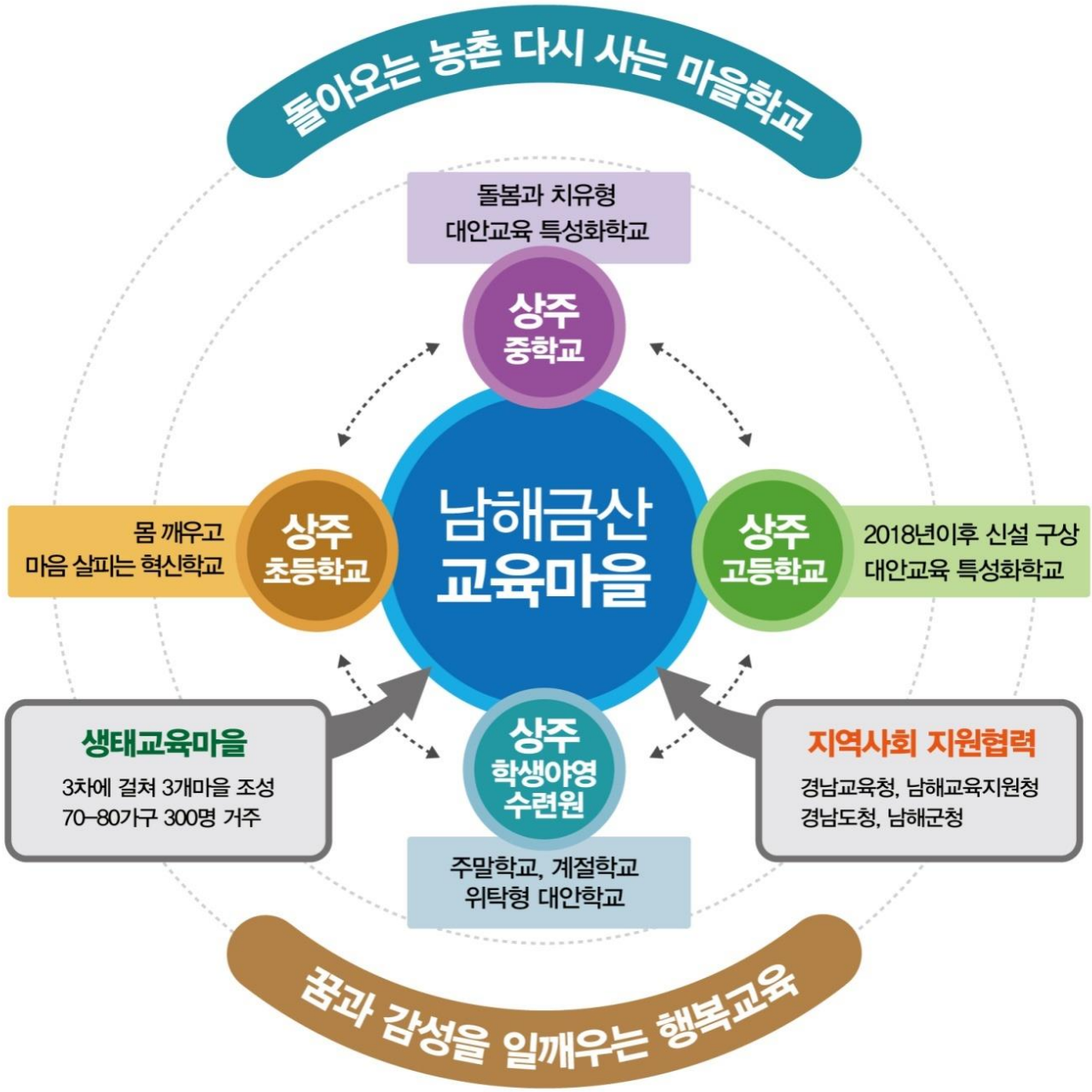
2014년 2월 21일

태봉고등학교운영위원장 김학범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교육공화국 남해를 꿈꾼다!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
돌봄과 치유형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상주
중학교
남해금산
교육마을
상주
초등학교
몸 깨우고
마음 살피는 혁신학교
상주
고등학교
2018년이후 신설 구상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생태교육마을
3차에 걸쳐 3개마을 조성
70-80가구 300명 거주
상주
학생야영
수련원
주말학교, 계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지역사회 지원협력
경남교육청, 남해교육지원청
경남도청, 남해군청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교육

상주중
상주초
인생학교
남해금산
교육마을
동고동락
팜프라
마을교육
연구회
보물섬고

서로 배우고 함께 꿈꾸며 성장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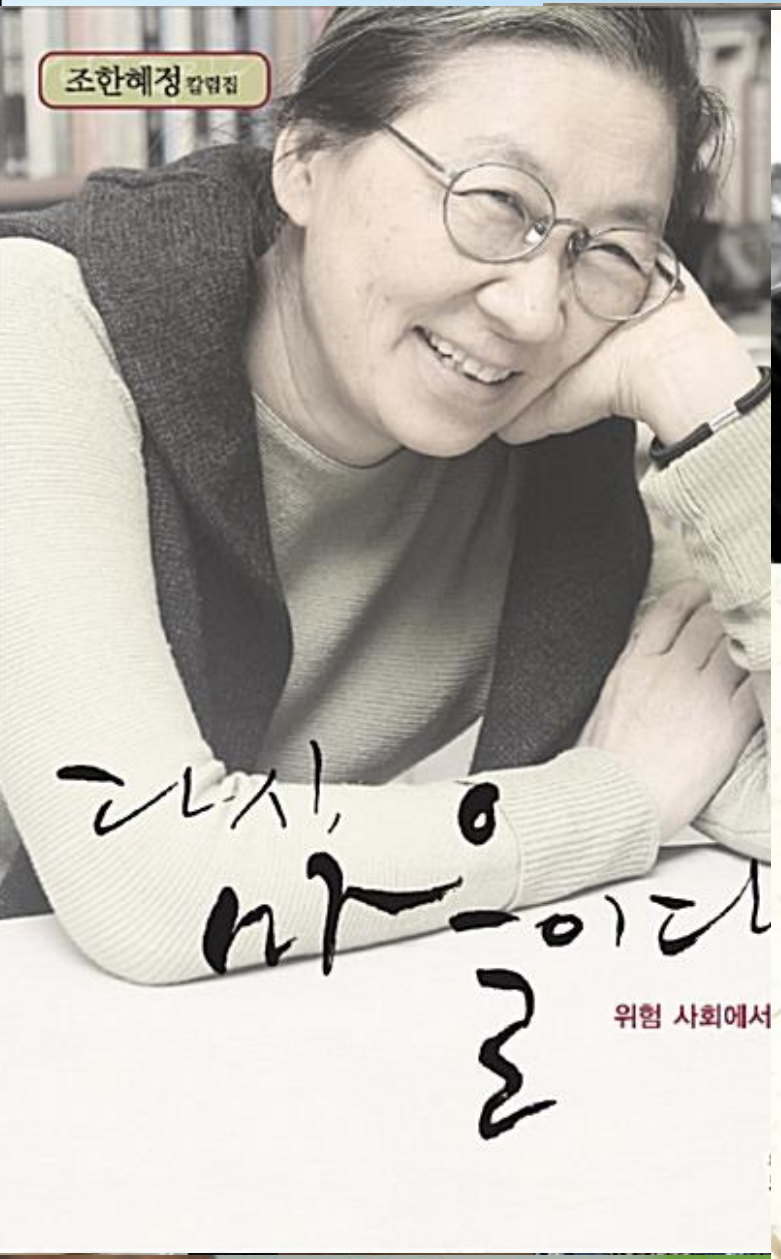
남해금산 교육마을 이야기

자연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

상주중학교의 변화와 혁신

남해 상주가 꿈틀거린다! 남해상주마을교육공동체

배움과 성찰에 목마른 남해상주마을교육공동체연구회



2023 남해상주 우리마을 인문학 강좌

매년 남해상주에서
'마을에서 철학하기'로 진행되는 우인강,
올해로 여섯 번째입니다.
2023년 우인강은 분기별로
총 네 번 진행됩니다.
그 첫번째로 '기후위기'를 다룹니다.
이송희일 영화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문제를 통찰력있게 분석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후위기와 마을의 미래

이송희일_영화감독

〈새로운 세상의 문 앞에서〉 저자
〈야간비행〉 감독, 각본, 편집(2014)

2023.03.22(수)
저녁 7시
상주면종합복지회관 2층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701번길 2

참여신청
https://bit.ly/2023우인강

주최
남해상주마을교육공동체연구회

본 강좌는 〈남해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공동체 인문학 강좌 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문의
조영 010.9095.5913

"마을에서 철학하기"
남해상주 우리마을 인문학 강좌 X 나눔샘 시민아카데미

참가신청

'연민'대신 '권리'를 나누기로 했다

2022년 남해상주 우리마을 인문학 강좌는 <나눔샘 시민아카데미>로 진행됩니다.
<나눔샘 시민아카데미>는 나눔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차원을 넘어 어려운 이웃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정	키워드	강좌명	강사
나눔 철학/관점	10/6	철학	권리찾기를 위한 나눔과 연대	유해숙
	10/13	빈곤	빈곤의 역사와 사회적 대응	이현숙
	10/20	능력주의	한국의 능력주의 (온라인)	박권일
나눔 실천/사례	10/27	마을교육공동체	고흥 온마을학교의 철학과 실천	이수일
	11/3	정보공유	나눔과 공유의 힘, 커뮤니티 매핑	지현진
	11/10	마을만들기	세상을 바꾸는 상상력 소셜 디자이너	강한솔
	11/17	차별	일상 속 차별과 마주하기	백신종

- 일시: 10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총 7강)
- 장소: 상주초등학교 책별당(단, 3강은 온라인)
- 참가신청및 문의 : 010-4023-1171 강대위
- 온라인참가신청 https://bit.ly/2022우인강
- 주최: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
- 주관: 상주마을교육공동체연구회, 상주초등학교, 상주중학교

* 전 강좌 수강신청 하시는 분들께는 주교재 '연민대신 권리를 나누기로 했다'와 '한국의 능력주의' 책을 제공해드립니다.
* 당일 아이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사전신청 시 꼭 알려주세요.

본 사업은 사랑의열매 와 마중물 이 함께 합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학부모

민간위탁 공립 대안학교 남해보물섬고등학교

남해보물섬고등학교는 행복한가요?

남해보물섬고 "기적을 보여줘 고마워"

참여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학부모

행복학교, 상주초등학교의 변화와 혁신

2022 현재 추진 현황

- 유치원 9명
- 초등학교 64명(27명에서)
- 중학교 90명

- 지난 6년간 약 45가구 정도 전입, 다시 전출 5가구. 현재 40가구 정도 머물고 있음

행복학교, 상주초등학교의 변화와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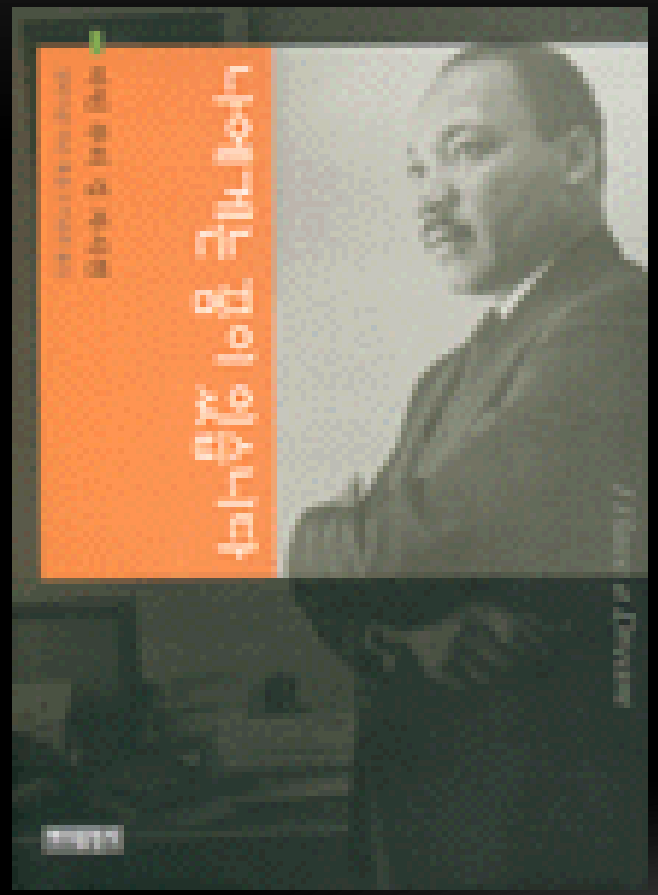
2022 현재 추진 현황

- 유치원 9명
- 초등학교 64명(27명에서)
- 중학교 90명

- 지난 6년간 약 45가구 정도 전입, 다시 전출 5가구. 현재 40가구 정도 머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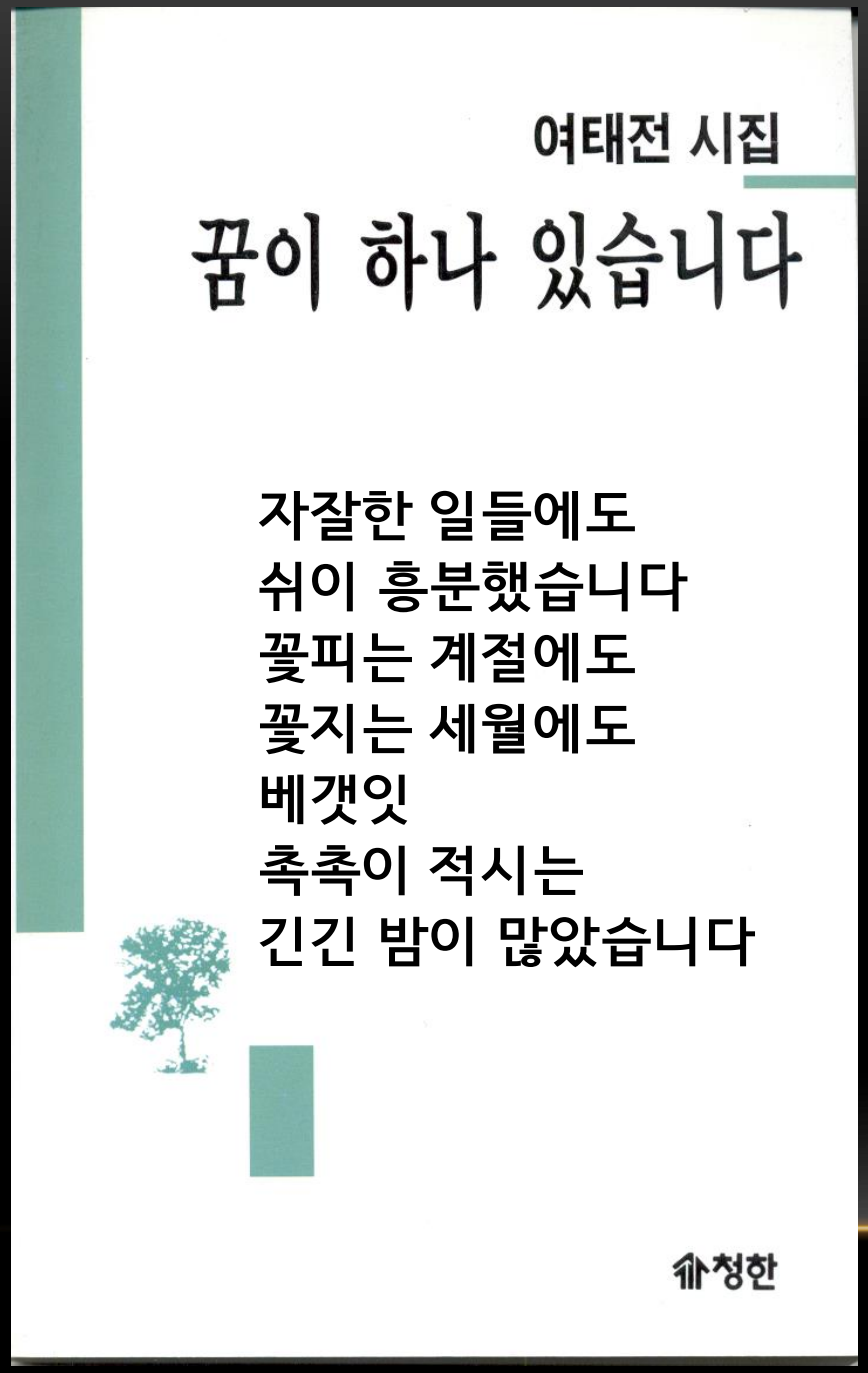
교육마을과 함께하는 인생학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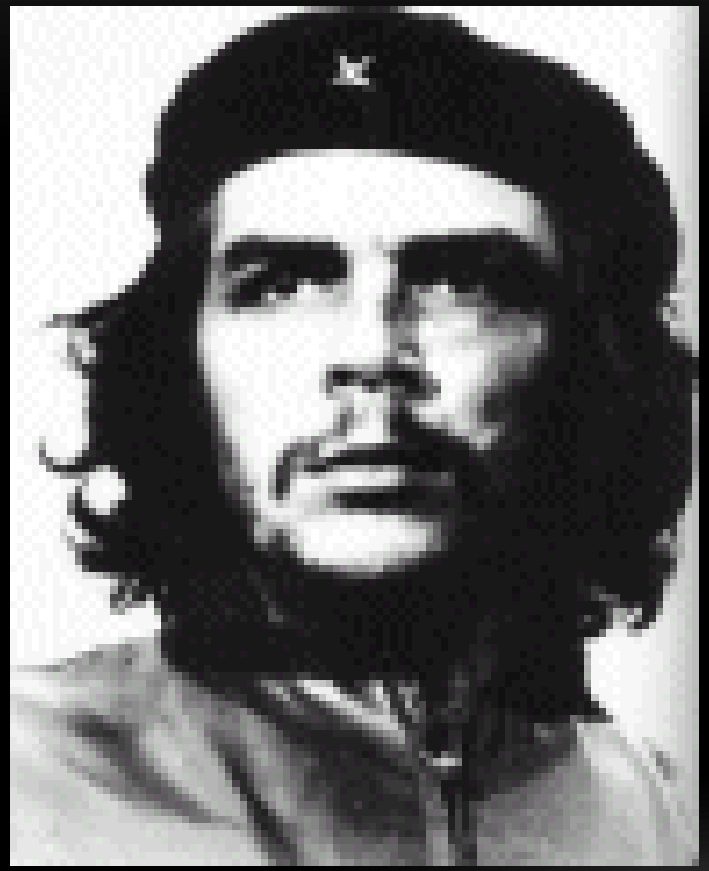
마틴 루터 킹(1929-1968)



바람만 건듯 불어도
뼈마디가 사무쳤습니다
그리움이 아닙니다
기다림도 모릅니다
단 한번
데워진 가슴이
식지 않는 까닭입니다

달밤이면 더 아리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몇 전생 거듭하여
품어온 사랑입니다
임이여
멀리 계시는 이여
먼동이 트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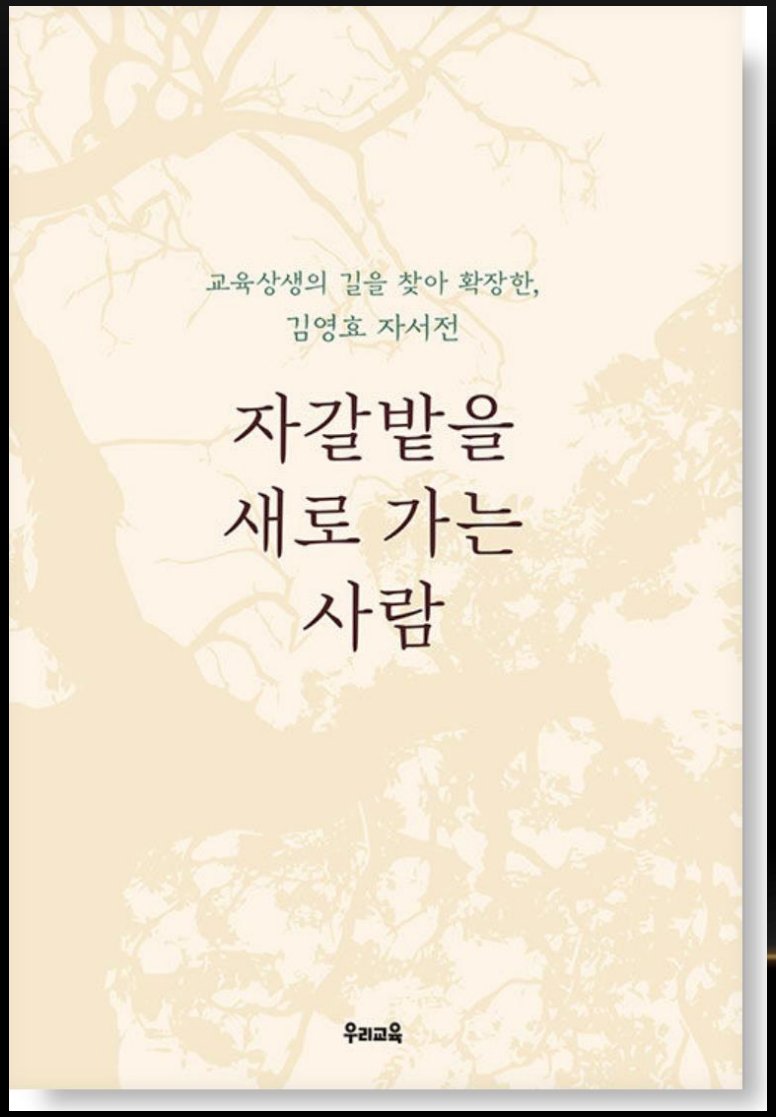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갖자.”

체 게바라 (1928-1967)

교육 상생의 길을 확장한 김영효 자서전



"자신의 삶에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가능성의 문이 열린다.

교사로서 배운다는 것은?
1.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2. 사랑이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것
3. 한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것

교사로서 한 명의 아이를 마음 속이라도 포기하거나 지워버린 적은 없는가?"

스스로 사랑이 되어 걷는 봄길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서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이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멀리 보고 가는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봄길**입니다

감사합니다